

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12. 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 FBI, 트럼프 행정부 지명자 겨냥 폭발물 테러 위협 수사
 - 11.28 언론은 FBI가 지난 26일~27일 이틀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팀 2기 행정부 관료 7명을 겨냥한 폭탄 테러 협박이 이어져 수사를 착수했다고 보도
 - ※ 백악관은 이번 일과 관련 “정치폭력 위협을 명확하게 규탄”하는 입장이라고 발표

유럽

- 英, PKK 활동 혐의로 7명 체포
 - 11.28 언론은 英 경찰이 쿠르드 노동자당(PKK)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테러 대응 수사의 일환으로 런던의 쿠르드족 커뮤니티센터를 수색하고 테러 활동에 연류된 것으로 의심되는 7명을 체포했다고 보도
 - ※ PKK는 1978년 터키 남동부에서 독립 쿠르드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창립된 분리주의 무장단체로 英은 2001년 테러단체로 지정
- 튀르키예, PKK/YPG 지도자 제거
 - 12.2 언론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보기구가 최근 테러리스트 수배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PKK/YPG지도자 「야사를 체키크」를 제거했으며, 범인은 최소 2건 이상의 테러 혐의가 있다고 보도

중 동

- 이스라엘, 태국 등 동남아 주재 국민에 테러 위협 경고
 - 12.1 언론은 이스라엘 국가안보위원회(NSC)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살고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잠재적 테러위협이 급증했다고 경고하였으며,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
 - ※ 태국 내 유대인 관련 시설 방문시 테러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주의할 필요

○ 이란, 시리아 알레포 이란 총영사관 테러 공격에 보복 발표

- 12.1 언론은 시리아 반군 세력이 시리아 알레포 외곽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시리아 북부 알레포 시내의 시리아 총영사관을 무장 테러범 조직원들이 공격한 것을 비난하며 보복 다짐을 발표했다고 보도
 - ※ 시리아 북부의 알레포주와 이德利브주에서는 11월 27일 시리아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카에다와 연계된 하아트 타흐리 알-삼 무장 그룹과 반정부 단체들이 대규모 공격을 시작

아 · 태평양

○ 日, 해외 자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테러 등 신속대응 조직 신설

- 11.29 언론은 일본 외무성이 테러나 분쟁에 대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영사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며, 평시와 유사시에 대응하는 조직을 각각 신설할 계획이라고 보도
 - ※ 타국의 테러 대응 부서 등 조직개편 상황 확인, 국제공조 시 참고할 필요

○ 韓, 키르기스스탄과 정상회담 열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 합의

- 12.3 韓-키르기스스탄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예방, 테러리즘을 특정 국가·문화·종교와 연관 짓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등 ‘포괄적 동반자 관계’ 격상 합의 공동성명을 채택
 - ※ 공동성명문에는 기후변화 협력, 환경보호 양해각서(MOU), 대외경제협력 기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조항도 포함

○ 파키스탄, 이슬람 종파 간 유혈 충돌로 133명 사망

- 12.3 카이버팍툰콰주 정부는 시아파와 수니파와 관련한 대책 회의後 성명을 통해 지난달 21일 이후 종파 간 충돌로 최소 133명이 사망하고 17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
 - ※ 언론은 종파 간 충돌이 지난달 21일 카이버팍툰콰 쿠람지역에서 시아파 차량행렬이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40여 명이 사망하면서 시작됐다고 보도

파리 에펠탑 인근서 獨관광객 피습 사망

- '23.12.2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 시내에서 20대 프랑스 국적의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독일인 관광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
 - 프랑스 검찰은 “용의자 아르망(26)이 체포되기 전 ‘알라후 아크바르(신은 위대하다)’를 외쳤으며 범행 전에는 자신의 SNS 엑스(X) 계정에 이슬람 국가(ISIS)에 충성 맹세를 한 동영상*을 게시했다”고 발표
 - * 용의자는 영상에서 아랍어로 자신을 ISIS의 전사라고 소개하며 아프리카와 이라크, 시리아, 예멘, 파키스탄 등에서 활동하는 지하디스트들을 지지
 - 또한, '18세에 이슬람교로 개종한 뒤 ISIS가 유포한 동영상, 선전 문서 등을 광범위하게 접하며 지하드 이데올로기에 심취했다고 부언
 - 佛 마크롱 대통령은 同 사건을 ‘테러 공격’으로 규정하였으며, 독일 정부는 “우리가 증오와 테러에 단호히 반대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”며 자국민이 사망한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명
- ⇒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심취하는 사례가 늘며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게시글 등 모니터링 강화 필요

< 이슬람 원리주의·이슬람 극단주의·지하디즘 >

- (이슬람 원리주의) 이슬람 교리를 정치·사회질서의 기본으로 삼아 이슬람교의 원점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운동으로 ‘이슬람 근본주의’라고도 한다. 일반적으로 자국 정부의 반서구, 반세속 개혁을 주요 목표로 한다.
- (이슬람 극단주의) 영국 정부가 제시한 신조어로, 이슬람을 내세워 민주주의, 자유를 반대하고 테러리즘을 일삼는 집단의 사상이나 심리
 - ※ 영국 대법원 정의 : △이슬람의 이름으로 테러리즘, 성범죄, 암살 등을 저지르는 것
△이슬람교도를 급진적으로 해석하는 것
- (지하디즘) 이슬람 공동체를 공격하는 외부에 항거하는 지하드가 극도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슬람 원리주의의 무장 투쟁 운동의 총칭이자 사상